

# 八思巴文字 新資料

金 芳 漢

本資料는 平昌李氏啓仁君荏子洞派譜(1966年刊行)에 兩面으로 실려 있는 것이다. (寫眞 A. B는 A가 模寫한 前版의 것).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그 內容을 알 수 없는 文書로서 幾百年동안 平昌李氏 門中에서 保存되어 내려오다가 族譜에 실리게 된 것으로, 이 수수께끼의 文書의 內容을 알기 위해서 後孫이신 李光雄先生(서울大·文理大)이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풀지 못하던차 1966年 筆者가 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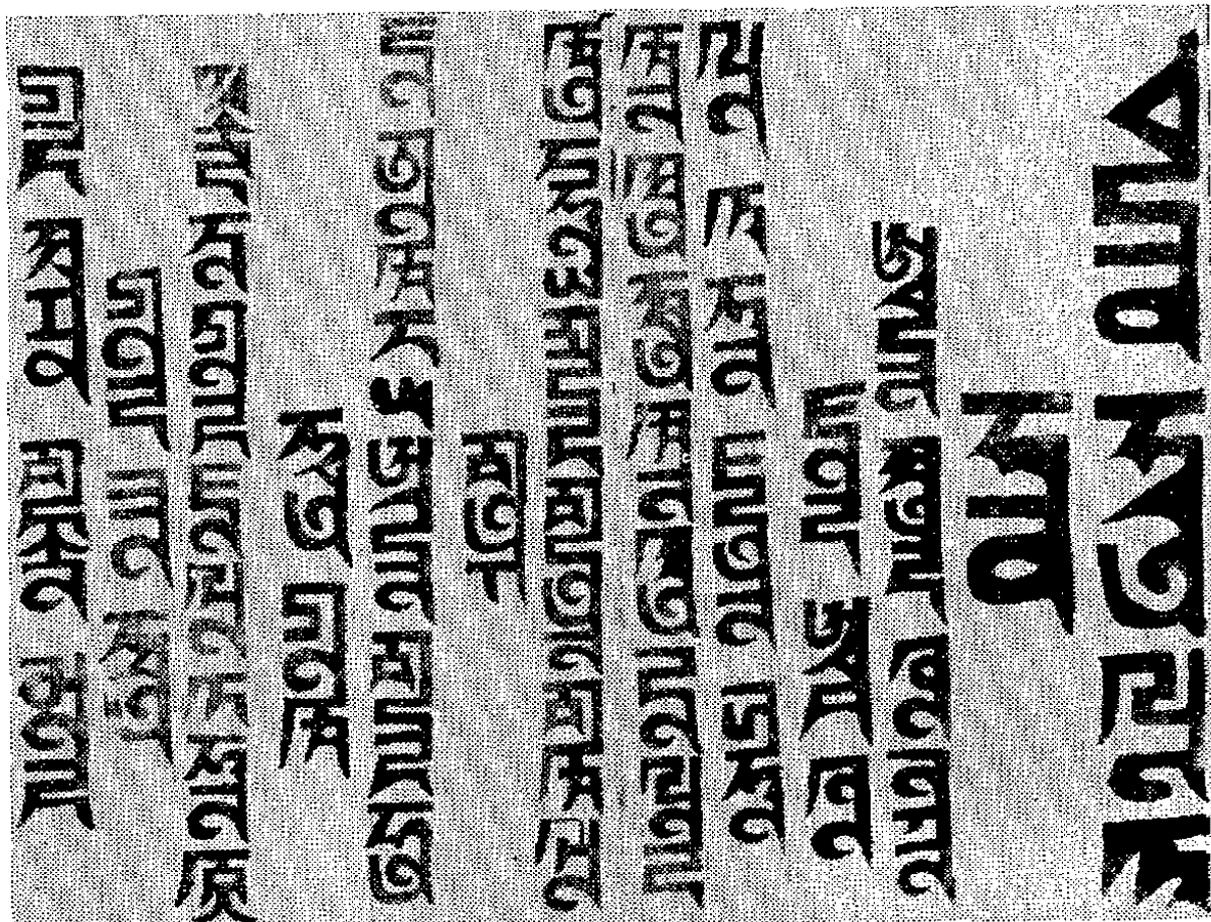
筆者는 一見하여 八思巴文字임을 알았다. 十餘年前부터 筆者는 過去의 高麗·元의 關係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八思巴文字의 資料가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希望아래, 새로운 資料發見에 關心을 가져온 터이라, 우리나라에서 最初의 이 八思巴文字 資料는 筆者의 비상한 關心을 끌었다. 그리고 解讀에 努力해 왔으나, 몇 部分의 解讀이 未備하여 오늘까지 그 發表를 保留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輪廓이 大體로 잡혀졌기에, 아직도 完全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나, 그 概要를 提示하려고 한다. 그間 貴重한 資料를 보여주시고 또 寫眞등 여러모로 協助해 주신 李光雄先生께 깊은 謝意를 表한다.

本資料에 관해서 同派譜에 다음과 같은 說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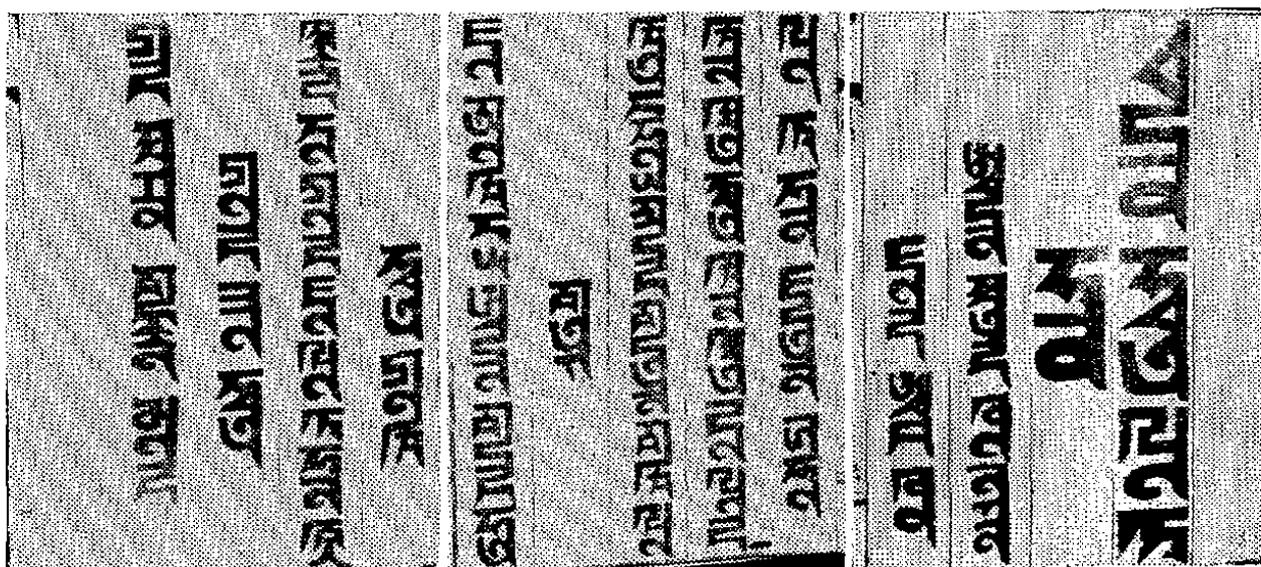
## 判書公璽牒

謹按我先祖左麗朝爲軍簿判書此載千戶公戶籍而職牒無見存者只有唐紙職牒一通傳藏於宗人昌禧家吾家世傳云我先祖仕元朝拜都督璽牒而紙爲六疊疊畫雙行第一行七字第二行五字第三行七字第四行七字第五行八字第六極行十一字第七極行四字合爲四十八字末行押璽璽長廣針尺二寸五分印跡鮮紅不渝皮封五疊面書五大字第一字上二畫缺破上印梅查蓋其字體非篆非隸頗釋氏之梵書字樣問諸篆家亦無解之者嘻自先祖以後今過機百年一幅古紙得保於滄桑龍漢之余傳以爲吾家之文貞笏者斯亦奇矣茲庸模出一本刊之譜卷以備諸宗參考

一幅古紙가 이러듯 貴重하게 保存되고 오늘 날까지 거의 原形에 가까운 모습



(寫眞 A)



(眞寫 B)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實로 崇祖精神의 反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그 內容을 알지 못했기에 漠然히 元朝의 都督璽牒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第一行七字, 第二行五字, 第三行七字, 第四行七字, 第五行八字, 第六極行十一字, 第七



한 記錄이라 하겠으나, 다만 「二畫」의 뜻을 알 수 없다. 第一字上에 字母 하나가 缺破된 것은 事實이다. 여기 補充되는 한 字母에서 左側의 畫과 右側의 直線의 畫을 합해서 二畫이라고 했을런지도 모른다. 아무튼 第一字上에 두 字母가 올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一字라 함은 漢字 한字를 가르키는 八思巴字의 結合을 의미하나, 한 畫이 한 字母를 가르키는 것이 아님은 確實하다.

原文의 八思巴文字는 模寫되는 동안에 상당히 變形되었기에 이것을 위와 같이 複元하고 다시 羅馬字化하여 여기 對應하는 漢字를 다음에 提示한다.

(s) uen<sup>(1)</sup> . huu<sup>(2)</sup> li ta han<sup>(3)</sup>  
宣 付 李 達 漢

1. šaŋ t'en gōn miŋ  
上 天 眷 命,
2. ɾoŋ di šiq̄ ji li ta han k'o šiq̄ zi huu  
皇 帝 聖 旨, 李 達 漢 可 承 襲 父
3. ji civ<sup>(4)</sup> dy uen jɛŋ hu huu<sup>(5)</sup> šiv  
職, 就 帶 元 將 虎 符, 授
4. vu dhiy jɛŋ gūn gav li gué  
武 德 將 軍, 高 麗 國
5. van ɾu huu<sup>(6)</sup> van<sup>(7)</sup> ɾu<sup>(8)</sup> ni liŋ<sup>(9)</sup>  
萬 戶 府 萬 戶 邑 令,
6. li ta han jūn c'hi  
李 達 漢 准 此,
7. uen t'uŋ ži nən jiq̄ ue ži<sup>(10)</sup>  
元 統 二 年 正 月 日

本資料는 위의 內容으로 보아, 元의 帝室에서 李達漢에게 授與한 一種의 辭令임을 알 수 있고 또한 辭令內容인 漢文의 한자 한자를 八思巴文字로 寫音한 것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元時代의 辭令에는 두가지 種類가 있다. 「元史」(卷九十一)의 百官志에서 文散官四十二階를 記述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說明이 보인다.

右文散官四十二階, 由一品至五品爲宣授, 六品至九品爲勅授, 勅授則中書署牒, 宣授則以制命之.

여기 의하면 宣은 一品에서 五品까지의 官職에 授與되는 것이며 勅은 六品에서 九品까지에 授與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宣은 制라 하여 天子의 말씀을 그대로 記述한 것을 의미하는 文書의 形式을 취한다. 여기 대해서 勅은 牒이

라 하여 中書省이 天子의 命을 받들어서 授與하는 文書의 形式을 취한다<sup>(1)</sup>. 本資料는 現在 볼 수 있는 몇 가지 宣勅과 比較해 볼때, 宣의 形式임을 곧 알 수 있고 또한 皮封에도 「宣付李達漢」이라 하고 있음으로 보아 宣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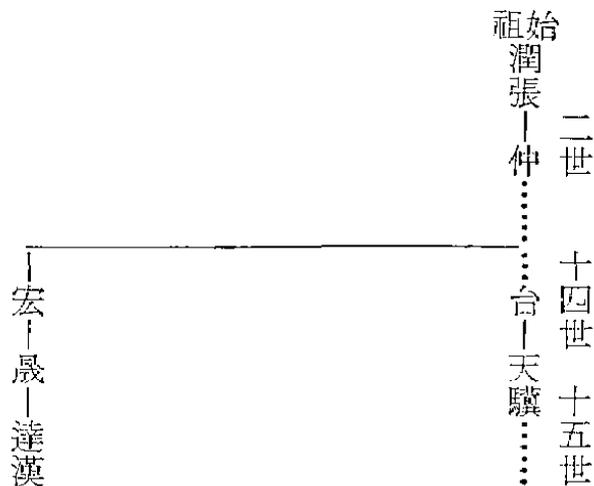
元來 宣勅의 正本으로는 八思巴文字만으로 記錄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 는 解讀하기 어려워서 別紙에 漢字로 記錄된 副本을 授與하는 것이 常例인듯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中國文獻에 실려 있는 宣勅을 보면 八思巴文字 右側에 漢字가 竝書되어 있다. 이것은 宣勅을 印刷할 때, 副本의 漢字를 移寫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2)</sup>. 本資料의 경우에도 그러한 副本이 果然 授與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現在는 八思巴文字만임으로 寫音된 漢字를 決定하기에 힘드는 경우가 있다.

〔註 解〕

(1) uen 앞에 s-를 補完한다. 「五大字第一字上二畫缺破」라고 말하듯, 한 字母를 補充하되 「宣」이 가장 적합하다.

(2) 蒙古字韻<sup>(3)</sup>에 의하면 「付」와 「符」가 各各 𑖑ᠦ와 𑖑ᠦ와 같은 相異한 字形으로 表記되고 있다. 本資料에서는 그러한 字形上의 差異를 區別할 수가 없다. 위의 두 字形中 前者의 첫 字母는 주로 漢字音의 表記에만 使用되는 것으로 普通 字母表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sup>(4)</sup>.

(3) 平昌李氏先系圖를 보면 다음과 같다. (平昌李氏啓仁君荏子洞派譜 所載)



(1) 神田喜一郎; 東洋學文獻叢說, 東京 1969, p. 75f.

(2) Ibid. p. 76.

(3) 蒙古字韻(東洋文庫所藏 寫本)

(4) N. Poppe; The Mongolian Monuments in hP'ags-pa Script, Wiesbaden, 1957, p. 19.

그리고 各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經歷이 記錄되어 있다.

宏——麗朝奉翊大夫  
鷹揚軍上護軍  
中朝拜大都督  
璽牒在平壤人  
昌禧家

晟——宣授宣武軍  
營軍萬戶舊  
草譜以丞

達漢——本朝奉翊大夫  
安州牧使  
戴平壤誌

또한 參考로 達漢의 子「雅」條에는

千戶公職牒謄書  
王旨  
李 雅爲宣節將軍平壤  
道右翼江西管軍千戶者  
永樂十二年十二月十三日

위의 記錄을 보면 本資料가 「中朝拜大都督」이라하여 宏 條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提示한 本資料의 內容으로 보아 위의 李達漢에게 관한 것이 틀림 없다. 그리고 平壤誌(卷三, 126)에 의하면 「武職 李達漢 牧使」라는 記錄이 있을 뿐이다.

(4) 寫眞 A에서는 첫 字母가 ㄱ으로 되어 있고 寫眞 B에서는 좀 더 正確하게 ㄱ으로 되어 있다. 이 字母도 一般 字母表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蒙古語 以外의 外國語를 寫音하기 위해서 考案된 것이다. 蒙古字韻에서 漢字音을 表記하는데 보인다. 이것은 E(j 照)에 대한 ㄱ(j 精), ㄱ(c' 穿)에 대한 ㄱ(c' 情)를 考慮하여 ㄱ(c' 床)에 대한 c로 羅馬字했다<sup>(5)</sup>.

(5) 原文에서는 첫 字母가 ㄱ(g)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필시 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數次 模寫되는 동안에 變形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行에도

(5) 를 便宜上 c로 表記했다. 이것이 實際로 中國語音의 ts, dz 어느 것을 寫音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異說이 있다. cf. M. J. Hashimoto, The hP'ags-pa Transcription of Chinese Plosives, Monumenta Serica, vol. 26l, 1967, pp. 160—163.

(6) 箭內 互; 元朝牌符考(蒙古史研究 p. 877)

이 漢字가 寫音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正確하게 ㄱ로 表記되고 있다.

(6) 元史(卷九十一) 百官志, 諸路萬戶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上萬戶府, 管軍七千之上.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俱正三品, 虎符, 副萬戶一員, 從三品, 虎符.

中萬戶府, 管軍五千之上,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俱從三品, 虎符, 副萬戶一員, 正四品, 金牌.

下萬戶府, 管軍三千之上,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俱從三品, 虎符, 副萬戶一員, 從四品, 金牌.

이것은 萬戶·千戶·百戶등의 軍官佩符를 말하는 것이다. 特히 上萬戶府의 達魯花赤, 萬戶와 副萬戶 그리고 中萬戶府의 達魯花赤와 萬戶의 佩符로서 千戶·百戶등의 金牌·銀牌보다 上位에 속하는 것이다.

(7) 이 경우 첫 字母 ㄱ가 k'로 表記될 수 없다. 이것은 van으로 表記되어야 한다. 蒙古字韻에 의해도 v인 ㄱ(또는 ㄱ)가 ㄱ로 表記되고 있어서 k'인 ㄱ와 區別되지 않고 있다.

ㄱ 平看刊上侃術去侃看術(下六)

ㄱ 上晚婉輓去萬戶蔓曼(下六)

(8) 筆者는 最初 萬戶府의 van ya가 萬戶가 아니라, 어떤 地名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것이 地名 아닌 萬戶府萬戶가 하나의 官職名임을 알게 된 것은 韓沽欣教授의 論文「麗末鮮初 巡軍研究 —麗初 巡檢制에서 起論하여 鮮初 義禁府成立까지 미침—」(震檀學報 第 22號 pp. 5-74)에 의한다. 여기서 上揭論文이 의해서 萬戶府萬戶를 간단히 살펴 볼 必要 있다,

國初因麗制 置巡軍萬戶府 太宗二年

改爲巡衛部 三年又改爲義勇巡禁司 十

四年改今名 掌奉教推鞠之事(東國輿地 備攷 卷之一 義禁府 條)

이것은 麗朝의 巡軍萬戶府에서 巡衛府·義勇巡禁司 등을 거쳐서 義禁府에 이르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 따라서 麗制에 따랐다는 巡軍萬戶府에 관하여 高麗史(百官志二 諸色都監各色 條)를 보면

巡軍萬戶府：有都萬戶上萬戶副萬戶鎮撫千戶提控恭愍王十八年改爲司平巡衛府置提調一人判事三人叅詳官四人巡衛官六人評事官五人辛禩復改爲軍萬戶府恭讓王元年使掌捕盜禁亂

이라 하여 麗代에 있어서의 變遷過程과 그 職務를 간단히 說明하고 있다.

麗廷이 蒙古의 支配下에 들면서 忠烈王元年에는 政治機構가 全面的으로 改編된다. 더욱기 元에 있어서의 州縣捕盜機關이었던 巡馬所가 忠烈王三年 高麗에 設

置된다. 「巡馬」는 元에 있어서 中統五年(元宗五年) 以來 地方州府驛路에 設置된 防盜機關이었던 것이다. 巡馬所에는 巡馬軍이 配屬되어 있어서 이들은 실제 巡軍이라고도 일컬어졌으며 巡馬所가 巡軍府로 改編되었다. 또한 그것이 高麗史百官志의 이른바 巡軍萬戶府의 略稱임이 確實하다. 蒙古는 처음 日本遠征을 피하면서 高麗軍에게 獎勵의 目的으로 摠官·千戶 등 蒙古風의 軍職을 授與하던 것이 나중에는 王京等處에 管軍萬戶府를 두게 하고 다시 鎮邊萬戶府를 沿海要衝에 두었던 것이다. 巡軍萬戶府의 職制에 대해서는 위에서 引用한 바와 같이 高麗史에 의하면 巡軍萬戶府에는 都萬戶·上萬戶·萬戶·副萬戶·鎮撫·千戶·提供 등의 元制에 따르는 軍官制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元의 支配力이 解弛되면서 恭愍王五年에는 萬戶·鎮撫·千戶 등 從來 元에서 賜與되었던 諸軍의 職牌를 걷을것을 命했던 것이다. 그 以前에는 다음 記錄과 같이 萬戶府萬戶도 元帝로부터 授職되었던 것이다.

元以武略將軍巡軍千戶高宗秀 爲王京等處 管軍萬戶府萬戶 賜三珠號符(高麗史節要 卷二十一 忠烈王十九年夏五月 條).

그리하여 恭愍王五年六月에는 至正年號를 停罷하고 七月에는 官制를 文宗代의 舊制로 大幅 復舊시켜서 元에 의하여 變改되었던 官制를 麗朝元來의 것으로 還元시킨다. 그러나 麗廷에서는 그後 自主的인 立場에서 各地에 萬戶府를 設置하고 萬戶·千戶 등 職牌를 發付하고 있음은 一般官制의 復舊와는 달리 兵制에 있어서는 그 復舊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形式上 習熟한 元의 制를 그대로 踏襲 採用했던 것이다. 그後 恭愍王十八년에 巡衛府로 改編되었다가 禡王代에 다시 萬戶府로 改編된다.

本資料의 萬戶府萬戶도 위에서 概觀한 것과 同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宣이 授與된것도 元의 支配下에 있던 忠肅王의 復位三年에 該當하는 것으로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萬戶府萬戶가 元帝로부터 授職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元史에 의하면 萬戶·千戶 등이 世襲軍官이기 때문에 牌符도 또한 世襲된것 같다는 說이 있다<sup>(7)</sup>. 이렇게 볼 때, 本資料에서 「李達漢可承襲父職」이라 함도 그러한 世襲關係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就帶元將虎符」라 함은 牌符의 世襲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達漢의 父인 晟條에 「宣授宣武將軍管軍萬戶」라 함도 위에서 引用한 高麗史節要에 보이는 管軍萬戶府萬戶와 同一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이것 또한 그 子인 李達漢의 萬戶府萬戶와 一致하여 世襲的인 關係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同派譜에서 達漢條

(7) Ibid. p. 880.

에 「本朝奉翊大夫 安州牧使」라 함에 몇 가지 의문을 자아낸다. 무엇보다도 本資料의 年代인 元統二年(1334)과 李朝太祖(即位 1392)까지만 해도 58년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達漢의 生卒年代를 알 수 없고 또한 達漢이 몇 살때에 宣이 授與되었는지는 몰라도 同派譜의 記錄대로 본다면 宣이 授與된지 58年以後인 李朝 때 다시 安州牧使가 된 셈이 되어서 時間上 약간의 無理가 있다. 平壤誌의 李達漢은 同名異人이 아닐까?

(9) 邑令・暫定的으로 이렇게 보았으나 確實하지 않다.

(10) 元統二年(1334). 忠肅王(復位) 三年. 元의 順帝 薨임.